



꿈을 꾸어요

최영일/색동회 회장

꿈 은 산 봉우리로 둘러싸인 작은 산 마을에
함박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

자그마한 초가집 마당에 나와 서서 꽃
송이가 휘날리듯 내려오는 함박눈을 바라보던 어린
소년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.

“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”

옆에서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귀가 솔깃했습니
다.

“그래 얼마나 많이 왔으면 좋겠니?”

“높은 산 꼭대기까지 꼭 차게 왔으면 좋겠다.”

엄마는 더욱 기대에 부풀었습니다.

“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려구?”

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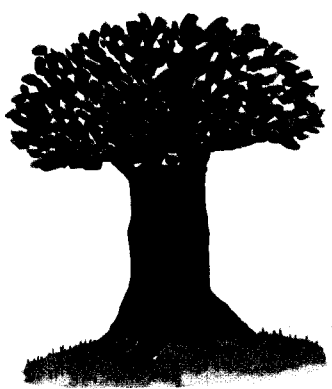
“올라가서 뭘 하려구?”

“산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오지”

엄마의 마음은 터질듯한 감격에 가득했습니다.

비록 산골에 사는 어린 아들이지만 그 마음속에
그렇게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데 놀라고 감사해서
다시 물었습니다.

“그래 그 큰 나무를 베다가 뭘 만들려구?”



“이쭈시개 만들지”

순간 엄마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감격과 기대는
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

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집을 짓는다는지, 큰 배
를 만든다는지 뭔가 큰 기대에 가슴 벅찼던 엄마의
마음은 이쭈시개를 만든다는 말 한마디에 슬프도록
허전했던 것입니다.

라이트 형제는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
꿈을 안고 비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.

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직접 말할 수
있을까 생각하며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간
직하고 연구한 에디슨은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.

큰 꿈을 꾸다고 하는 것은 큰 뜻을 품는다는 말
입니다.

어린 자녀들이 큰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기
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입니다.

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야의 경험
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.

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각 분야에
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.

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화를 통한 간접 경험입니
다.

동화속에서 하늘을 날고 깊은 바다속을 여행하
고, 사슴과 소나무와 바위가 이야기하고, 과거와 현
재와 미래를 오고 가는 환상 속에서 우리의 꿈은
한없이 부풀어 가고 그 꿈을 품고 자라나는 어린이
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
자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.